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신앙생활    제목 : 교인의 기쁨    성경: 시편 37편  
1-11절

1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3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7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험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37:1-11)

## 1.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자신의 사랑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뭔가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분명히 잘하고 있다.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고

싫어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것 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무언가는 아직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도 있다. 왜냐면 남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치된 사람은 제 멋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껏 악랄하게 행동할 것이다. 마치 한꺼번에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처럼 더 화려하게 인생을 만끽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냐면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는 기대 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더 크고 더 가치있고 더 선하고 더 의롭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교인의 기쁨은 무엇일까? 누군가를 특히 내가 모셔야 할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함정이 있다. 그것은 더 큰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가까이 다가간다면 그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모르실 리가 없지 않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하다.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경건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리한 것이 된다. 편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쁜 일이 된다.

하나님 앞에 가장 단순한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물론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모를 수 있다. 그러나 사랑하기 시작했다면 그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이 교인의 기쁨이다.

4 또 여호와의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 2. 예배당을 기뻐하는 것

예배당은 특별한 장소이다.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에게 만남은 특별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에게 예배당은 특별하다.

예배는 물론이려니와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 사람들에게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이 중요하다. 특별하고 귀하고 좋고 의미있고 선한 것일수록 그 환경은 더 청결하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질서정연하고 친절하고 정중하고 겸손하고 다정하게 된다.

예배당이 바로 그런 곳이다. 내가 정결해 지는 곳이다. 내가 평안해 지는 것이며,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곳이다.

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27편4절)

## 3. 선행을 기뻐하는 것.

그가 교인이라면 그는 선행을 기뻐하며, 아무런 대가 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선행 그 자체가 그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선행으로 말미암는 댓가나 기대는 크게 관심하지 않는다.

선행에도 힘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다.

취미생활을 하려고 해도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심지어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가 그 취미생활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상관하지 않는다.

물론 좋은 취미생활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관계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취미생활하는게 아니라, 기뻐하기 때문이다.

교인에게 있어서 선행도 비슷하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얻는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선행하기 보다는 그것이 기쁘기 때문이다.

선행만큼 기쁜것도, 보람있는 것도, 유익한 것도 없다. 선행이 없으니 건강도, 기쁨도, 만족도, 보람도 없는 것이다.

물론 좋은 일 하면서 비방도 받으며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취미생활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 4.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하는 것

교인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즐긴다.

하나님의 판단과 그의 심판을 정당하게 여긴다.

요즘처럼 사람의 판단과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실행행사를 바라보는 것들이 빈번한 때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실행행사는 썩 좋지만은 않고 어떨때는 악하게 비쳐지기도 한다.

(제주도 강정마을 사람들의 주장-해적기지?)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정의롭고 선하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비쳐지지 않을 수 있다. 내 입장에서는 나에게 손해라고 여겨질 수 있다. 내게 손해라고 정의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교인의 기쁨은 나의 유익이나 나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한다.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한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명이요, 사명이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

레위기 전체 흐름 ( PPT 문서 자료 ) - 거룩하게 하는 율법

1장 ~ 7장 : 거룩한 제사 -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제, 거제, 전제)

8장 ~ 9장 : 거룩한 제사장 위임식

10장 : 거룩한 불 (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과 죽음 )

11장 :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음식

12장 : 거룩한 산모와 아기, 상혈이 맑아지는 기간

16장 : 거룩한 날 - 속죄일과 대 속죄일

17장 : 거룩한 백성의 생명 윤리 ( 피와 기름 먹지 말라 )

18장 : 거룩한 백성의 부부윤리 (성윤리 )

19장 : 거룩한 백성의 사회생활 ( 사회윤리, 경제윤리 )

20장 : 반드시 죽어야 할 죄 ( 사회를 깨끗하게 )

21장 : 거룩한 제사장 처신 규례

22장 :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

23장 : 거룩한 절기 ( 절기명령, 문화명령, 교육명령 )

24장 : 성막과 제단관리 ( 거룩한 장소 )

25장 : 거룩한 땅 ( 땅의 주인은 하나님, 안식년, 희년, 토지법 )

26장 : 복과 저주 ( 상과 벌 - 하나님을 알도록 )

27장 : 부칙 ( 돈 문제 )

하나님 사랑

번 제 : 예물 - 헌신

소 제 : 예물 - 공경

화목제 : 나눔 - 화목

속죄제 : 속죄 - 회개

속건제 : 변상 - 회계

낙헌제 : 기쁨을 나눔

수은제 : 감사로 나눔

요 제 : 기쁨을 나눔

거 제 : 감사를 포함

서원제 : 맹세로 드림

위임제 : 임직을 확인

제 사 : 사람이란 누구나

제사장 : 제사를 돕는 이

말씀하신대로 거룩한 제사 !

사람 사랑 (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

식품과 위생 (11장)

산모와 아기 (12장)

치료와 관리 (13장,14장)

깨끗한 생활 (15장)

깨끗한 마음 (16장)

생명을 존중 (17장)

도덕과 윤리 (18장,19장)

영원한 격리 (20장)

거룩한 가정 (21장,22장)

거룩한 절기 (23장)

성막을 관리 (24장)

안식년 희년 (25장)

보상과 보복 (26장)

서원과 대속 (27장)

2. 레위기의 7하 원칙

언 제 :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다 지은 후에 (레위기 1:1)

어 디 서 : 시내 산 회막에서 (레위기 1:1)

누 가 : 하나님께서 (레위기 1:1)

누구에게 :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 출 20:18~ 21, 레위기 1:1,2 )

무 엇 을 : 거룩하게 하는 율법을

어 떻 게 : 모세를 부르셔서 (레위기 1:1)

왜 : 하나님의 소유 (세쿨라 - 패물)로 삼으시려고 (출 19:5/ 레 20:26)

뛰어난 민족으로 선교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출 19:5,6/ 신 28:1~14)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출 19:5,6/ 레 19:2)